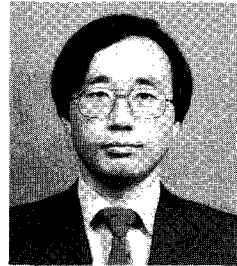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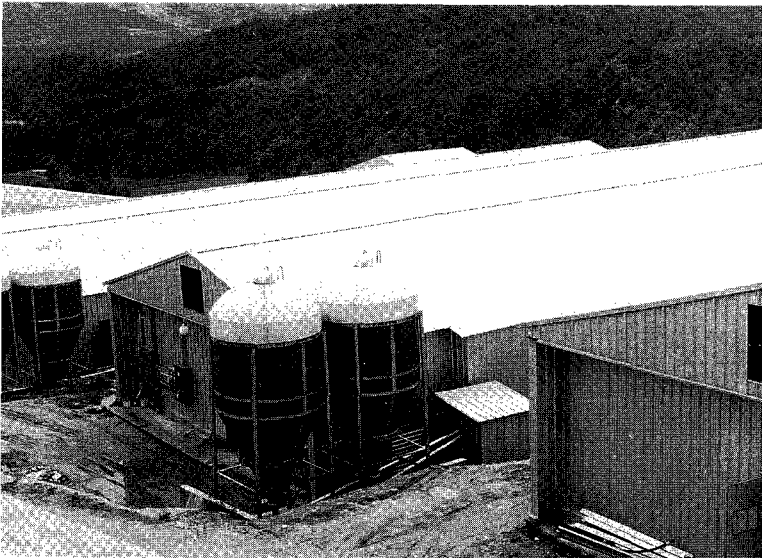


# 무창계사, 쾌적한 환경 과신하면 안된다.



안 형 진  
퓨리나코리아 이사



**양**계장 경영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계분 처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무창계사 설치의 우리나라 양계업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계사 한 동당 5만수 또는 10만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는 보편화 되었다. 요즘은 지었다 하면 무창계사이며 한 동당 규모도 수만수이다. 전체 사육수중 30% 이상이 무창계사에서 길러지고 있다. 투자 금액도 엄청나다. 수억 또는 수십억이다.

옛날과 비교하면 몇 개의 농장을 합친 규모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

은 금액이 투자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가 했는데 실제로는 매우 산란성적이 미흡하여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선진국의 산란 지수가 300개가 넘는데 우리

는 어떤가? 아쉬움이 많다. 눈부신 외형적인 발전에 비해 농장 경영인의 경영기법은 어떤가? 예전 그대로이다.

그러다 보니 무창계사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분도 있다. 차라리 종전의 유창계사가 훨씬 산란 성적도 좋고 관리도 쉽고 문제가 발생되어도 계군 규모가 적어 손실이 많지 않아 우리 현실에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무창계사 농장경영을 그만둘 수는 없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정비하여 새로운 경영 방침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물러서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

## 1. 무창계사의 문제점

### 1) 경영기술 미흡

규모가 확대되어 종전의 10개 또는 그 이상의 계군이 한 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시설도 전부 기계화, 자동화되어 관리가 힘든 덜 들어도 훨씬 까다로워졌다.

투자 규모도 엄청나 수십억원에 달하나 이렇게 변한 기업 환경에 비해 경영 마인드는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퇴보하였다. 이제는 대충대충 종전처럼 경영해서는 안된다. 매우 과학적인 방안으로 치밀하게 기업을 경영하여 성공시켜야 한다. 훨씬 심각한 경영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 2) 기록관리 퇴보

기업 경영에서 가장 기본은 기록이다. 현금의

입·출금, 비용지출, 생산성 등 모든 것이 철저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동화, 기계화가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종전보다도 더 후퇴되었다.

산란 개수의 기록도 선별기에서 인쇄되어 나오다 보니 그대로 보관하는데 그치고 전체 농장의 폐사수수, 산란율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계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

### 3) 건강관리 소홀

무창계사는 한마디로 밀사이므로 계군의 건강에 이상이 오면 그 확산 및 피해가 매우 빠르며 크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수적인데도 바쁘다 보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 4) 산란성적 불량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가 많이 된 것에 비하면 성적이 영 기대에 못 미친다. 과도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생산성이 높고 생산비가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너무 사료 가격 경쟁에 치우치다 보니 사료 품질의 중요성을 소홀히 취급한다. 파란율 1%이면 산란이 1% 줄어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파란이 6~15%나 되고 있으며 노계로 가면 지방간증의 피해 또한 엄청나다.

## 2. 개선방안

### 1) 출입통제

원칙에 입각한 경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출입자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농장 입구에서부터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동선을 통제해야 하며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농장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의 전쟁을 한없이 해야하며 또한 그 결과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패배는 곧 실패를 의미한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농장에 들어갈 때 모든 옷을 벗고 샤워한 후 농장 안에서만 입는 소독된 옷을 입고 신발도 농장 전용 신발을 신고 작업하는 배려가 이제는 필요하다. 농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직접 관리하는 자기만의 계사만 출입하여야 한다.

## 2) 소독철저

소독의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패하면 큰 일이므로 늘 긴장된 마음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장 입구에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소독한 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소독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계사 입구에도 반드시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며, 계사마다 그 안에서만 신는 신발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계사 문을 열 때 자동적으로 천정에서 소독약이 분무되어 어떠한 출입도 소독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계사를 신속하고 케이지를 조립한 후에 처음으로 닭을 넣을 때도 닭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흔히 신계사인데 무슨 질병이나 하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도태 후에도 반드시 물로 세척한 후 소독한다. 계분 덩어리에 아무리 많은 소독약을 뿌려도 세균과 소독약이 접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소독 전에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한다. 물론 세척 시에는 감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3) 철저한 계군 감시

대군이므로 한 마리 한 마리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어떤 닭은 도태될 때까지 작업자의 눈에 한 번 못 부딪치고 말며 폐사계가 그 자

리에서 며칠씩 지나기도 한다. 4~6층으로 높다보니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느 한 쪽 부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특히 이른 아침에 폐사계를 철저히 색출해내고 원인도 추정해 보아야 한다. 또한 밀사이므로 신속한 원인 파악 후 처리하지 않으면 금방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사육수수가 많다보니 약값도 웬만하면 천만원이 넘는다. 발병 초기에 신속히 발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난각의 색깔, 난각강도의 변화도 매일 매일 철저히 변화를 감시하여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4) 정기적인 계군 건강진단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관하면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중간 중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혈청검사를 하여 보관 중인 항체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처한다.

폐사 숫자의 변화도 철저히 기록, 관리하며 폐사계는 해부하여 원인을 추정하여야 하고 폐사계도 철저히 문거나 소각하여 감염계에 의한 확산을 막아야 한다.

#### 5) 충분한 공기 공급에 초점

무창계사는 닭에게 항상 쾌적한 온도를 줌으로써 사료 섭취량이 적어(105~110g/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 웬이 돌아가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계사내의 온도는 일정하여 사료 섭취량은 적게 되지만 닭 입장에서의 관리는 아니다. 닭은 계사내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어야 최고의 산란 성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온도보다는 닭에게 필요한 공기를 계산하여 웬을 가동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온도를 내려야 한다. 온도에 중점을 주어 관리하던 것을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초점을 바꾸어야 한다.

#### 6) 위생적인 사료급여

무창계사의 성공여부는 높은 생산성과 안정성에 있다. 산란율 1%의 차이도 사육수수가 많아 그 금액이 엄청나다. 많은 자본을 투자한 기업이 안정성이 없으면 사업이 아니고 투기이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요즘처럼 온갖 무서운 질병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는 상황에서 위생적인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의 선진화에 걸맞게 사료도 위생적인 열처리를 한 크럼블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7) 균형있는 사료급여

적은 섭취량에 맞추어 에너지의 함량을 너무 높히거나 일본식으로 무조건 단백질만을 높여 사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대규모 사양에 맞게 사료도 균형있고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에너지와 다른 영양소간의 균형, 필수 아미노산간의 균형, 필수아미노산과 비필수아미노산의 균형을 고도로 정밀하게 맞추어야 산란 지속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란 성적의 변화가 적다. 아울러 무창계사의 특성

에 맞게 난각을 특별히 강화할 수 있도록 사료를 설계해야 한다. 계란은 계사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며 선별, 세척, 포장할 때까지의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난각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 8) 기록 철저

사육수수가 많으므로 폐사수, 파란, 산란율의 변화가 매우 적어야 한다. 약간의 변화도 계군 전체로 보면 큰 변화로 인식되어야 한다. 산란율 몇 %의 변화가 유창계사에서는 비가 오기 때문이겠지, 환경 온도의 변화이겠지 등등의 이유로 용납되지만 무창계사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창계사보다 철저히 모든 성적이 기록되어야 하며 약간의 변화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모든 판단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근거는 기록 결과의 분석이어야 한다.

### 3. 결 론

무창계사의 쾌적한 환경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된다. 유창이든 무창이든 간에 모든 관리가 관리자가 아닌 닭 입장에서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닭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편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바꾸어야 한다.

이제 양계장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큰 기업체이므로 경영 마인드도 크게 가지고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개선된 생산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 **양계**

# 노 계 유 통 전 문



노계유통에 일익을 담당할  
대림유통이 탄생했습니다.  
양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대 립 유 통

대 표 변 광 일

충남 천안시 다가동 373-3 (삼화B/D302호)

Tel: (0417)574-4600-1

FAX: (0417)572-5949